

동서양 조형 작품에 보주 널리 활용돼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석류(石榴)→씨앗이 가득 찬 씨방→보주가 가득 찬 씨방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고려시대 의종 11년(1157년) 봄 4월 고려궁 후원에 연못을 팠는데, 거기에 정자를 세우고 이름을 양이정(養怡亭)이라 했는데 정자와와를 뒀다고 한다. 그러므로 앞서 분석한 청자 수막새는 1150년경에 만들어진 청자와로 그 등에 음각으로 새겨진 조형은 영기문 줄기에서 무수한 영기씨를 싹트게 하면서 마침내 영기꽃이 피어나는 도상이다. 그리고 주머니 모양 씨방 안의 씨앗들이 보주로 변하면서 밖으로 발산하는 형상인데, 그것을 연이어 놓고 씨방에서 보주들이 널리 발산하는 형국이다. 청자와와를 세로로 세워 영기꽃을 바로 잡으면 놀랍게도 바로 고려사경 표지 그림과 같은 조형이 된다.(그림 ①)

고려사경의 표지의 그림은 약간씩 다르지만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조형이다.(그림 ②) 사경 표지에 그랬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을 것이다. 그 까닭을 생각해보면, 사경이란 것은 여래와 보살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여겨 불상을 금색으로 도금하듯, 금색이나 은색으로 쓴 것이니, 여래장 사상(如來藏思想)을 반영한 것이라 해석하였다. (<한국미술의 탄생>, 솔, 2007, pp. 552~555) 즉, 중생이 여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으며 생명의 근원인 씨앗을 고차원적 상징인 보주로 승화시키며 여래가 곧 보주가 되어 여래의 정수리로부터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형국이나 '씨방=보주'의 조형과 같지 않은가. 보주는 곧 진리(실법)를 말한다. 만일 보주를 광물성 보석들, 즉 수정이나 다이아몬드, 루비 등 귀금속이라

모두 알고 있는데 단지 '보주가 보배로운 구슬'이란 의미뿐이라면 올바른 용어라 할 수 없다. 보주에 대하여는 그 함유하고 있는 바가 너무도 커서 연재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보주의 본질을 알기 원한다면 <수월관음의 탄생>,(글항아리, 2013년)을 읽어 볼 필요가 있다. 그 저서 한 권 전체가 보주에 대한 모든 것을 처음으로 밝힌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조형이 서양의 기독교미술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보주의 개념은 서양에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살펴보니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뿐이었다. 서양 미술사학자들은 모두 석류로 알고 있으므로 보편적 상징을 밝힐 수 없었다. 서양 역시 씨방의 조형적 역사는 유구하다. 서양의 르네상스시대의 대표적 화가 지오토(Giotto, 1267~1337)가 그린 '성 스테파노'의 초상화를 보면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갖추었는데 그 주변에 놀랍게도 씨방에서 보주들이 줄줄이 나오는 도상이 있다. 원래 금색 한 가지이지만 채색분석하여 보니 씨방에서 보주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씨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보주들을 보고 경악한지 오래되었지만 광배의 알갱이들이 너무 작아 오늘도 깨알 같은 입자들이 선(線)인 줄 알았다. 보이지 않았던 입자들을 돋보기로 보는 순간 삼천 개의 보주들이 스테파노의 몸으로 부터는 1500개의 보주가 겹겹이 파동치고, 스테파노의 머리로부터는 1500개의 보주가 파동치며 질서정연하게 무한히 퍼져나감을 보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눈에 보일 듯 말 듯 한 알갱이 하나하나를 빨간 색으로 칠했다.(그림 ③) 지오토는 이렇게 중요한 도상을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배운 것일까?

석류가 아니고 씨방이라고 하는 증거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기원전의 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시리아의 것을 사람들은 '석류와 팔메트'라고 부르고 있다. 이미 밝힌 것처럼 석류는 씨방이고 팔메트는 '제3 영기씨 영기문'이다. 즉 서양에서도 보편적인 만물생성의 근원으로 삼은 것을 어느 특정의 식물의 씨방으로 알고 있다.(그림 ④) 용도는 알 수 없으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소장 작품은 아시리아의 조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그림 ⑤) 결코 씨방이 아니다. 그런데 그 씨방 안에 보주가 가득 차 있으므로 씨방으로부터 엄청난 영기가 발산하는 양상은 동양이 단연 독보적이다.

중국 당나라의 조형을 보면 씨방에서 보주가 나오고, 다시 연이어 씨방이 나오며 보주가 생기는 도상인데 사방으로 갖가지 영기문이 발산하고 있다.(그림 ⑥) 중국 송나라에 이르러 씨방 안에 '씨앗=보주'를 그려 넣었으며 사방으로 역동적인 영기문이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고 있다. 단지 씨앗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그림 ⑦) 씨앗이 승화하여 만물을 탄생시키는 보주로 화(化)하기 때문에 이런 영기문이 역동적으로 발산하는 것이다.

조형미술을 해독하면 세계는 한 마을임을 깨달을 수 있으니 전에는 없었던 생각이다. 일향 한국미술사연구회장



그림 ①



그림 ② 일본 대승사 소장 법화경권제1표지(2)



그림 ③ 스테파노 광배 채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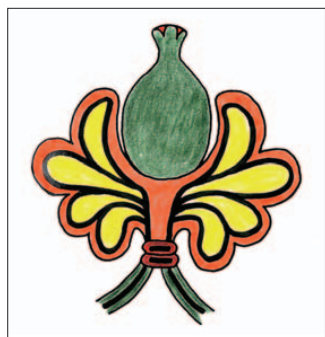


그림 ④ 아시리아의 씨방, 기원 전 3세기



그림 ⑤ 서양 4, 5세기의 씨방,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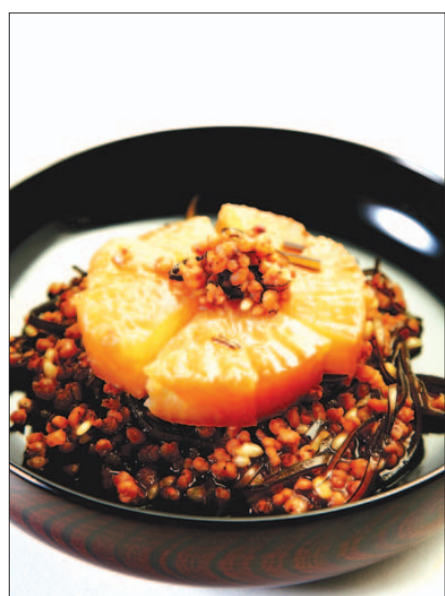
그림 ⑥ 중국 당나라의 씨방



그림 ⑦ 중국 송나라의 씨방, 엄청난 영기가 발산하고 있다

藥 이 되는 사찰음식

달짝지근한 가을무는 짬이 제격



수수소스의 다시마 무찜
△재료(4인 기준)
○ 무 높이 4cm 1토막(300g), 다시마 사방 10cm 크기 1장, 볶은 현미찰쌀 1큰술, 볶은 울무 1작은술, 물 3컵, 소금 1/3작은술, 간장 1작은술
○ 수수소스
국간장 1.5큰술, 찰수수밥 4큰술, 생강 1톨, 맛가루 1.5컵

△만드는 법
① 무는 높이 4cm 높이로 자른 후 분량의 재료와 함께 넣어 중불 정도에서 부드럽게 익도록 삶은 후 6~8등분 한다.
② 익힌 다시마는 길이 4cm 정도로 채 썬다.

③ 맛가루에 수수밥과 간장, 생강을 넣어 끓이다가 먼저 익힌 무를 넣어 양념이 배이도록 부드럽게 익혀낸다.
④ 그릇에 수수밥과 다시마를 깔고 그 위에 익힌 무를 얹어낸다.
⑤ 기호에 따라 약간의 들기름을 얹어 먹어도 좋다.



초고추장 소스의 도토리 묵선
△재료(4인 기준)
○ 도토리묵 1/2토, 고구마 줄기 적당량
○ 소 - 느타리버섯 50g, 애호박 50g, 청고추 1개, 홍고추 1/2개, 녹말가루 1큰술, 소금 1/4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 초고추장 소스
유자초추장 3큰술, 매실식초 2큰술, 매

실청 2큰술, 생강즙 1작은술, 간장 1작은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① 도토리묵은 길이 4×5cm 두께 0.7cm 정도의 크기로 썰어 약간 꾸덕하게

말린다.
② 느타리버섯은 데쳐서 잘게 다지고, 애호박은 잘게 다져 소금에 살짝 절여 수분을 없앤 다음 각각 볶아 식힌다.
③ 느타리, 애호박에 청홍고추 다진것을 넣고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한 다음 녹말가루를 넣어 소를 만든다.
④ 약간 꾸덕하게 마른 묵에 소를 채우고 고구마 줄기를 묶어 김으로 찜을 5분 정도 찜낸다.
⑤ 찜낸 묵선에 초고추장을 곁들여 낸다.
도토리묵 해독작용·피로회복에 좋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무가 참으로 달 짝지근하니 그 맛이 절정에 다다른다. 무는 전분 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풍부하여 속쓰림, 위산과다 위 더부룩함, 숙취 등에 효과적으로 뿌리와 껍질에는 비타민 C와 모세혈관을 강하게 하는 비타민 P가 함유되어 있어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무를 이용하여 조림을 할 경우는 무를 살짝 삶아서 하는 것이 좋는데 이때 삶는 물에 수수나 현미를 넣게 되면 특유의 아린맛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단맛을 내게 된다. 단 생것보다는 살짝 볶은 것을 사용해야 깊은 맛이 나게 된다.
도토리는 치질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 지혈작용이 있어 출혈을 멈추게 하고 설사를 멈추게 하며 해독작용이 있다. 또한 피로회복에 좋고 소화기능을 촉진 시키며 당뇨나 성인병에 효과가 있고 잇몸염, 인후염, 화상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흔히 도토리묵을 목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약간 말린 도토리묵 전골을 하거나 찜서 만든처럼 먹게 되면 훌륭한 식감의 별미가 된다. 여기에는 담백한 간장소스보다는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이 더욱 입맛을 돋구워준다. 김은경(본초전통음식연구사 소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인신체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로 바뀌는 효소 절실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영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 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모든 교법을 모아一心으로 통하도록 한 회통불교의 백미! 팔만대장경의 축소판!

「원인론」과 「발미록」을 번역·해설한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스님 번역·해설
신국문 | 양장 | 250페이지 | 348쪽 | 20,000원

문·사·철의 모범이자 비교종교학의 효시 불교의 개론서이자 종파를 초월한 수행지침서

이 책은 먼저 중요한 교상관념들의 개요를 보았다. 화엄종의 제5조이며, 선교일치(敎一致)를 주창한 규봉종암(圭峰宗密: 780-841) 선사(의 원인론)는 원문을 실어서 번역하였으며, 논주의 글과 해설문을 구별하기 쉽도록 이색(異色)을 사용하였다. 정원(鄭源: 1011-1088) 법사가 「원인론」을 해설한 「발미록(發秘錄)」은 원문을 번역하여 옮기고, 중요한 글은 원문을 실었으며, 각 장마다 요점을 정리하고 해설하였다.

이 책은 유교와 도교의 교법을 요약하여 그 근본을 밝히고, 미혹함과 집착함을 비판하여 물리쳤다. 다음은 불교의 교법을 인천교, 소승교, 대승법상교, 대승파상교, 일승현성교로 분류하고, 그 교법의 내용과 근본(法)을 밝힌 뒤에, 치우침과 얽음과 깊음을 분별하였다. 또한 선문의 삼종과 교문의 삼종을 비교하여 선문과 교문이 지향하는 정점은 동일함을 밝혔다. 끝으로 인간세계의 근본인 일심을 밝혀서, 모든 교법을 모아 일심으로 통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수승한 근거는 이 「논」의 뜻을 단박에 깨달아 알은 것을 버리고, 성품을 바로 보인 깊은 교법에 의지하여 원대한 일심의 바다로 향하여 물러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원 ☎ 055-375-5844, 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ilapa) 비움과소통 ☎ 02-2632-8739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2번째 저서 출간!

* 바로보인 선문염송 23권

전30권 중 제2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집합역할을 하고 있다.

*** 화두 (한영중 3개국어판)**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담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